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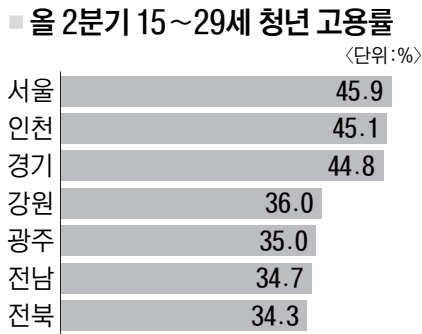
호남 청년 10명 중 7명이 ‘백수’

2분기 광주 청년 고용률 35%

전남·전북도 전국 최하위권

수도권과 10% 이상 차이 나

청년층 수도권 유출도 심각



호남의 청년들이 최악의 고용 한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15~29세 청년 고용률은 비수도권에서 39.6%로 수도권(45.3%)보다 5.7%포인트 낮았다.

특히 올 2분기 전북의 청년 고용률이 34.3%로 가장 낮았고 전남 34.7%, 광주 35.0%, 강원 36.0% 순으로 고용률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호남 3개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고용률이 전국에서 최악인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의 청년 고용률이 4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인천 45.1%, 경기 44.8%로 16개 시도 가운데 청년

고용률 상위 3곳을 수도권이 차지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통상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5%포인트 안팎으로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서서히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양새다.

올해 1분기엔 비수도권 청년층 고용률이 38.7%였으나 수도권은 5.2%포인트 높은 43.9%였고 지난해 4분기에도 비수도권은 39.5%, 수도권은 43.9%로 수도권이 4.4%포인트 높았다.

반면 전체 고용률로 따지면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는 청년층만큼 크진 않았다. 7월만 해도 전체 고용률의 경우 비수도권이 60.7%로, 수도권 61.7%보다 1%포인트 낮은 데 그쳤다.

이처럼 호남 등 비수도권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것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떠나는 상황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성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06~2015년간 지역별 청년층(15~34세) 인구 이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기는 청년 인구가 51만6000명, 인천은 6만6000명 늘어 전국 16개 시도 중 1, 2위를 차지했다. 서울도 3000명 늘었다. 반면 충남(2만명)과 울산(2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은 모두 청년층 인구가 유출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유치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제조업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전 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육·양육·간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여성복지, 교육 등 사회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일보 ‘제4기 리더스아카데미’ 오늘 2학기 개강

왕순킷 중국 파워통 미술관장 초청 강연

‘아시아 현대 미술 흐름’ 주제

과거에는 미술 중심지로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을 꼽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상하이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경제발전과 맞물려 큰손들의 출현으로 세계 미술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위에 민중, 장사오강, 첸 웨닝 등 스타 작가를 배출하는 중심지가 되고 있다.

광주일보가 ‘제4기 리더스아카데미’ 2학기 개강 강사로 왕순킷(Wong Shun-Kit) 중국 파워통 미술관장을 초청해 아시아 현대 미술 흐름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6일 오후 7시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4층 연회장.

왕 관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중국 최초 사립미술관인 상하이 히말라야미술관장을 맡아 중국 미술 중심부에서 활동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작가 8명과 한국 이매리 작가가 참여한 베니스비엔날레 병행전시 ‘인간 자연과 사회’를 기획해 유럽에서 전시를 열기도 했다. 보수적이고 진부한 중

국 미술계에 신선한 전시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히말라야미술관(옛 젠다이 현대미술관)은 중국 젠다이 그룹이 지난 2005년 개관했다. 건물 길이만 200m에 달하며 호텔, 디자인센터, 작품 판매소 등으로 구성된 히말라야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다. 전시, 교육, 컬렉션, 연구, 국제교류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히말라야미술관 개관 이전에는 중국의 모든 미술관은 정부가 운영해왔다.

왕 관장은 이번 강의에서 상하이 주요 미술관 특징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미술관 발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또 중국 미술작가와 작품을 살펴보고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큐레이터를 맡으며 겪었던 에피소드와 자신이 기획한 전시 ‘둔황-살아있는 노래’ 후일담도 들려준다. 이번 강의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222-811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왕순킷 관장
-중국 상하이 히말라야 미술관 관장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베이징 국제주해 대학 대표 교수
-홍콩예술발전위원회 시각예술위원회 의장
-제49·50·54·56회 베니스 비엔날레 큐레이터, 커미셔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5일 전북 군산에서 제35차 협의회 총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안희정 충남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창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전남도 제공>

최문순 강원지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선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5일 전북 군산에서 제35차 협의회 총회를 열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부회장 2명과 감사 1명은 조만간 회장이 선임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또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시도지사 보수체계개편, 시도 회관 건립에 따른 행정자치부 소관 기금 활용

등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윤창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등 시·도지사들은 이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설명을 들은 뒤 이날 군산 세만군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태지부(ASPAC) 총회에 참석했다.

이 지방정부연합 총회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36개국 지방정부의 단체장 등 140개 단체에서 500명이 참석해 도시의 새로운 여건을 ‘지역·생명·문화’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한다.

최문순 신임 회장은 “지방의 재정확충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시도 회관 건립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남구민 오카리나 대합주 세계 기네스 도전

11일 문화전당서 1만5천명

아리랑·아침이슬 등 연주

‘작은 거위’를 뜻하는 ‘오카리나’의 영롱한 소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휴대하기 편하고, 배우기도 어렵지 않아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는 악기이기도 하다.

광주 남구청과 오카리나 음악도시 문화진흥회가 함께 마련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주년 기념 2016 남구민 오카리나 대합주’가 오는 11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외 광장에서 열린다.

특히 1만5000명이 함께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이번 대합주는 단일 악기 최대 인원(1만명) 연주로 세계 기네스북에 도전, 눈길을 끈다.

김태현 광주대 음악학과 교수의 지휘로 진행되는 합주에서는 ‘아리랑’, ‘아침이슬’, ‘침필밀’, ‘오카리나 남구 아리랑’, ‘우리는 행복해요’ 등 5곡을 연주한다.

남구청은 지난 2012년 1만5000명이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13년에는 2만명이 광주대에서 오카리나 연주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공식 기록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 남구민 오카리나 대합주’가 오는 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대합주는 단일 악기 최대 인원(1만명)으로, 세계 기네스 기록에도 도전한다. 지난 2012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오카리나 대합주 모습. <광주남구청 제공>

이번 대합주는 KRI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에 도전하며 이어 세계 기네스북과 미국 등 국제적으로 인지도 있는 해외 기록인증 기관에도 인증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최고기록은 2013년 3081명이 참여한 영국 런던 로얄 알

버트 홀 오카리나 앙상블 공연이었다. 한편 오전 11시부터는 5·18민주광장에서 오카리나 국내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체험, 전시, 버스킹 공연 등도 펼쳐진다. 문의 062-675-7709, 607-231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람을 찾습니다

실종 당시 모습

- 162cm의 아연 체격, M자형 대머리, 목 뒤에 강낭콩 크기만한 혹이 있음
- 가슴, 배, 머리에 수술자국이 있음
- 실종 당시 삼정게이트볼 글자가 자수로 놓인 검은색 청, 뒷면은 흰색인 모자를 쓰고, 상의 모시 옷깃이 없는 반팔에 곤색 망사 주머니가 있는 조끼, 하의 검은색 바지, 흰색 바닥에 검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음
- 3차례 암수술과 오랜 투병생활로 치매증상 있으며 체력저하로 보행이 불편하고 정력이 약함
-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음(평상시에 약을 못드시면 잠도 제대로 못주무셨음) 갑자기 통증이 있을시 깜빡깜빡 놀라시기도 함

실종일시 : 2016년 8월 3일
실종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룡지구 중흥아파트 정문 인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바 좀 찾아주세요!!

최규복님 아들 최현성
010-5113-6582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동영상 이론과 실습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20년 전 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동구 금남로 3층근린시설 우리은행빌딩 코너위치 대로변 건물 250평 토지 17평 ▶ 감정가 21억3천 최저가 18억7천만원
- 서구 양동 건물425평 대지75평 숙박시설 방40개 지하층~지상5층 ▶ 감정가 11억 최저가 6억 (감정가의 45%)
- 광산구 신창동 신축3층원룸건물108평 대지70평 방11개 수문조, 산장조인근 위치 및 건물확장 ▶ 감정가 4억7천 최저가 3억7천
- 서구 쌍촌동 2층일반주거지역 도로접 대지499평 투자적합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정가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당

- 남구 봉선동 모아아파트인근 1층근린상가 건물85평 대지57평 투자최적 ▶ 감정가 6억5천만원 최저가 6억5천만원
- 서구 치평동 6층근린시설 세정아울렛인근 건물 280평 토지66평, 상권충족, 커피전문점운영중 ▶ 최저가 9억5천만원
- 동구 동명동 3층근린주택(상가+주택) 아시아문화전당부근 건물60평 토지47평 건물상태 좋음 ▶ 최저가 2억3천만원
- 영암군 시종면 근린시설 3층건물305평 대지209평 주차장있음 면사무소인근 계획관리지역 ▶ 감정가 8억9천 최저가 3억2천만원

★ 금매 ★ 광산구 하남3지구 383선 대로점 상영지역 대지132평 전면널음, 상권확장 프랜차이즈상당현영 ▶ 거래가 18억(조정가)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자본 없이도 채테크 가능!!

교 육 특 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없이도 공장을 소유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6. 7. 18(금) ~ 2016. 9. 9(금)
- 수업기간 : 2016. 9. 8 ~ 2016. 12. 8
- 수 강 료 : 18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 접수문의 : 0621230-7700 ~ 2 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